

혁명에 대한 태도문제

주체 110(2021)년 6 월중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지도밑에 당중앙위원회 제 8기 제 3 차전원회의가 진행되던 때의 일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에서 계속 강조한 문제이지만 이번 전원회의에서 다시금 명백히 하자고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과 기술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과학기술인재들을 아끼지 않는 일군은 당에 충실하다고 말할수 없으며 우리와 혁명을 같이할수 없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전원회의참가자들은 숙연해짐을 금할수 없었다.

경애하는 그이의 가르치심을 새겨볼수록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태도이자 곧 혁명에 대한 관점과 태도이며 당에 대한 충실성의 표현이라는 숭고한 뜻이 가슴에 마쳐와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것은 원료나 자재, 자금보다도 과학기술에 명줄을 걸고 그 혁신과 발전으로 무에서 유를, 바라는 리상과 목표를 이루어내려는 배짱과 실천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일군들이 그 어떤 요행수를 바랄것이 아니라 과학자, 기술자들을 믿고 그들의 충성심과 애국심, 창조적능력을 최대로 발양시켜 오늘의 난국을 타개해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를 우리르며 전원회의참가자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